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과정, 젠더 그리고 자녀교육*

장 지 혜**

I. 들어가며

“한국에서 결혼을 해도 일부는 베트남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적응 못 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올 거고, 한국에서의 노후생활이 녹록치 않거든요. 저도 노후도 생각하고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오는 역 이주 가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역으로 올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거기(한국)에서 적응 못하면 여기 올 거예요. 일부는 베트남으로 다시 올 테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A-남편, 40대)

남편 은퇴 후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나라에서 생활을 하려하거나, 생존을 위한 가족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결혼 이주한 여성이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국인 남편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되고 자녀도 성장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이 녹록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한국동남아학회 2013년도 한-아세안학술교류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jang2063@hanmail.net

“대안적인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아래로부터 초국가적 인적 이동”(김이선 외 2014:123)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역(逆) 이주’라고 부른다.

‘역 이주’라는 용어는 결혼이주여성이 행위의 중심이 되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의 용어이다. ‘역 이주’는 일반적으로 ‘귀환 이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학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행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이주여성이 이혼 혹은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예를 들어, 김현미 2012, 2014; 최호림 2015 등)에 집중해 온 바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행위는 가족 해체 후 본국에 돌아가는 것 외에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 동반 이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모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귀환계획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 추세”(김이선 외 2014:97)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후에 베트남으로 이주한 가족을 다루고자 한다. 이 경우 남편과 아이는 이주를, 베트남인 아내는 귀환이주(역 이주)를 한 셈이다. 이와 같은 이주, 역 이주, 귀환이주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서 한국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한국을 벗어난 공간에서의 행위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¹⁾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

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남성-베트남인 여성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족을 ‘한-베 가정’으로 명명할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형태의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

화적 경험에 주목할 것이다. 이주는 “끝나지 않은, 지속되는(on-going) 삶의 과정”(김현미 2012:140)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주자들은 순환적으로 자국민과 이방인이 되는 상황을 겪으며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점은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도 거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조건 아래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관계,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 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왜 베트남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 베트남 이주 동기와 과정을 살핌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배출요인과 베트남사회의 흡인요인이 무엇인지, 국제결혼 가족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베트남에서 살게 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는 가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 가정 내에서의 권력관계, 문화적 차이에 대한 대응, 처가 관계 등 젠더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베트남 이주 후 자녀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글로벌’한 공간적 이동에 따른 ‘글로벌’한 자녀 교육의 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질문에 답하면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처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설명하고 이들이 처한 조건하에서 구사하는 전략적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를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논의도 전무하다.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gia đình đa văn hóa’ 등)를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한-베 가정’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널리 쓰는 용어이고 국제결혼을 한 가족 스스로도 ‘한-베 가정’, ‘한-베 다문화가정’ 등으로 부르고 있다.

II. 논문의 이론적 위치와 연구과정

1. 논문의 이론적 위치

이 장에서는 연구대상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접근 방식과 쟁점을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의 특징은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모국으로 이주했다는 점과 동시에 베트남인 아내가 본국으로 귀환이주를 했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인 남편 입장에서 이주, 아내 입장에서 귀환이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논문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로 인해 변화를 겪는 사회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학계에서 한국 남성의 해외 이주에 관한 연구는 해외한인, 재외동포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제별로는 이주사, 정착 및 적응 과정, 한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적’인 것과 연관된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정착사회 내의 수많은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타민족 집단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양영균 외 2008; 정은주 2013). 연구대상도 재일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에 치우쳐 있어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편이다(최영호 2012:280). 동남아 투자 열기와 더불어 동남아 한인사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한인사회와 남성 이주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오고 있다. 베트남 한인사회의 내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를 다룬 연구(채수홍 2005)와 베트남 고령 남성의 베트남 은퇴이주경험을 다룬 연구(김현정 2013), 베트남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

적 삶을 다룬 연구(채수홍 2014)가 있다.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대부분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따라서 이동하는(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노동이주의 형태로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정주할 의사가 없는 ‘일시적 체류자’로 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며 살고 있으며, 베트남 문화에 동화할 의사 없이 한인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인들과 사회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채수홍 2014:50).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이주 행위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는 여성이 중심이 된, 여성의 국적을 매개로한 일종의 ‘귀환이주(역이주)’이다. 같은 ‘한국 남성의 이주’일지라도 노동이주를 통한 베트남 이주와 여성결혼이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이주행위는 서로 다른 맥락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한다. 아내의 귀환이주라는 측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 한인 남성의 해외이주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베트남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복합적 현상의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귀환이주(return migration)²⁾’는 일반적으로 “재정착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주자(emigration)의 이동”(Gmelch 1980:136)을 의미한다. 귀환이주 연구는 1970년대에 “왜 이들은 선진국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포기하고 저개발국가인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되었다(Gmelch 1980:138, 이창호 2012:158 재인

2) 초기 국제이주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유럽과 아시아 이주자들이 북미로 향하는 주요 이주흐름 속에서 ‘일방적 운동(one-way movement)’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Gmelch 1980:135).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일방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차츰 이주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귀환이주(return migrant)’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용). 초기 고전주의 이론이나 신경제학적 접근 이론은 ‘귀환’의 동기를 경제적 요인에 찾았으며 ‘귀환’을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유입국에서의 높은 임금을 기대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주를 결행한다고 생각하는 고전주의 이론에서 ‘귀환’ 행위는 이주자가 유입국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로 규정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귀환의 한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귀환은 실패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신경제학적 접근이다. 귀환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가정 혹은 공동체의 수입을 늘리고 투자 재원을 마련”(스티븐 키슬 외 2013:59)하기 위한 이주 동기와 마찬가지로 “계산된 전략(calculated strategy)”(Cassarino 2004:256)의 일부로 해석된다. 즉 귀환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귀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해 관계에 기초한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귀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모두 연결하는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assarino 2004:257).

이런 문제의식 하에 ‘귀환’ 행위가 이주 사이클의 종착역이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사회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과 같은 접근법이 나타났다(Cassarino 2004:260-268). 점차 이주 현상도 다변화되고, 이주자들의 귀환 현상도 증가³⁾하면서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 전지구적 이주체계와 연계하여 이주행위가 인식되기 시작

3) 국제노동협력원(현,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은 미국의 시사저널 ‘뉴스위크(Newsweek)지’(2009년 3월 23일자)의 기사를 인용하여, 지난 40여 년 간 노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국제이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망하며 이주에 있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이주의 감소, 역 이주(Return Migration)의 급격히 증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주가 감소하는 대신 역내 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국제노동동향』 No.417).

한다. 이런 접근법들은 흐름과 역흐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송출국과 유입국 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재외한인(혹은 한국계)의 한국 귀환에 대한 연구이다. 쓰다(Tsuda 2009)가 개념화 한 “민족(종족)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의 한 형태이다(이창호 2012:157). 이러한 연구로는 19세기부터 한국전쟁시기까지 이주한 사람들 즉, 고려인, 조선족, 재일조선인 등의 귀환 연구(예를 들어, 양은경 2010, 김재기 2014; 서정경 2014 등)가 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이주를 통해 외국에서 정착한 이후 모국으로 귀환한 자들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이영석 외 2006 등)도 있다.

또 다른 흐름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이주노동자의 귀환(예를 들어, 채수홍 2007; 한건수 2008; 양혜우 2011; 김나경 2015 등), 한국화교의 귀환(예를 들어, 장수현 2010; 이창호 2012 등), 결혼이주자의 귀환(예를 들어, 김현미 2012, 2014a; 최호림 2015)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대부분 귀환이주 동기, 귀환 후의 적응과 재조정, 지역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 특히, 이주로 인한 젠더관계의 변화, 초국적 자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귀환이주 연구는 주로 남성 이주자들의 귀환 과정과 귀환 이후의 정착 과정을 다룬 연구로 가족 내 젠더 역할이 중요한 맥락인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김현미 2012:119). 이런 문제의식 하에 결혼이주자 귀환을 다룬 연구(김현미 2012, 2014a; 최호림 2015)는 “글로벌 성적 위계와 부권적 가족제도”(김현미 2012:140)안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결혼

이주여성이 왜 급격히 주변화되고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국제결혼을 ‘실패’한 여성들의 귀환이 고향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낙인의 대상(김현미 2012:120)이 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여성의 행위성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여성이 노동이주를 통해 가족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젠더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과정을 분석한 자야틸라카(Jayatilaka, 2011)의 연구는 이주 행위로 획득되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획득하게 하고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행위도 선진국에서 습득한 정보 및 기술을 후진국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가정 내 권력관계, 고향마을에서 친정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젠더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여성의 귀환’은 달라진 사회문화적 배경아래 배우자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차이를 젠더 문제로 접근하여 행위자가 어떤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실천하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국적/혼성적 정체성, 언어자원 획득을 위한 교육이주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필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다름’을 경험하고,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존 연구주제가 “다문화 인식/태도, 적응/부적응, 현황/정책대안, 상담/치료 순(박현숙 외 2012: 465-466)”으로 높디는 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타자화’되는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

는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 이들은 혼성적인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초국적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초국적 아이라는 경쟁력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이중언어교육, 이중문화교육을 장려해 왔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아이의 이중 언어습득을 위해 엄마의 나라로의 교육이주 즉,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힘 있는’ 언어 자원인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필리핀, 중국 유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의 교육이주는 “현재 계급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중상층 계급이 선택하는 엘리트 이동의 성격(송준중 2008:122)”이 강하였고, 영미권 국가로 향하는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유학, 교육이주는 기존의 흐름과는 달리 제 3세계를 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유학은 중상층 계층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주/귀환이주, 남성과 여성, 초국적이고 혼성적 문화를 경험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이슈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연구과정 및 연구대상

한국인들의 베트남 이주는 1992년 한-베 수교 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에는 약 8만 5천 여 명에서 14만 명으로 추정⁴⁾되는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남부 호찌민(Hồ Chí Minh)시 푸미흥(Phủ Mỹ Hưng)에는 대규모 한인 밀집촌도 형성되어

4) 베트남 한인 인구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적게는 8만 6천명(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13 참조)에서부터 많게는 14만명(호찌민 한인회 홈페이지 참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는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지닌 한국인이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한-베 가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지 한-베 가정 1세대는 베트남 전쟁 시기의 파월군인이나 파월 기술자들이 수교 후에 다시 베트남에 재정착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은 전쟁 시기에 형성된 가족을 찾아 재결합하거나,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이주자가 젊은 현지 여성과 결혼 혹은 동거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세대와 달리 이후의 세대는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주시기⁵⁾와 결혼시기가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호찌민 한국국제학교(한인학교)에 다니는 한-베 가정 자녀의 수를 고려할 때 IMF를 기점으로 한-베 가정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국학교 고학년의 경우 한-베 가정 자녀들이 한 반에 3-4명 정도지만, 최근 몇 년간 저학년의 60% 정도가 한-베 가정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⁶⁾. ‘호찌민 한-베가정협의회’ 회장은 한-베 가정이 호찌민과 근교에 약 1,000가족이 살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고,⁷⁾ 한-베 가정 자녀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교장은 약 3,000가족이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현재 베트남 사회의 한-베 가정은 형태가 다양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학생활동을 하거나, 공장 매니저로 일하는 한국 남성들이 결혼적령기에 베트남에 살면서 현지 여성과 만나 결혼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5) “1992년 수교 이후에는 본격적인 한국인 이주가 시작되어 1992년-1997년 초창기 이주, 1998년-2006년 IMF 이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이주로 나눌 수 있다”(Nguyen Thi My Duyen, 2012:35).

6) 호찌민 소재 한국학교 한 선생님 면담 내용(2014년 1월 23일 인터뷰).

7) 2014년 5월 29일 인터뷰 내용

8) 2014년 4월 26일 인터뷰 내용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한 후에 다시 베트남으로 이주 하는 한-베 가정도 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초까지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호찌민시에 살고 있는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본인이 자원봉사를 했던 한글학교 한-베 가정 2세 아이들의 학부모와 베트남 거주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과 만남도 가졌다. 그 외 2014년 4월 발족한 ‘호찌민시 한-베가정협의회’ 임원 및 한-베 가정 2세 한글교실 관련 담당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인터뷰를 진행한 40여 가구의 한-베 가정 중 ‘역 이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정착한 다섯 가정의 남편과 아내 10명이다⁹⁾. 국제결혼가정에서 결혼형태, 즉 중개업을 통한 결혼인지, 연애결혼인지는 스스로를 구별 짓고 차별화 하는 주요 기제이다. 실제로도 결혼형태라는 변수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A,B,C) 아내의 학력이 대체로 낮으며 시골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연애결혼일 경우(C와 D) 아내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으며, 이들의 만남이 베트남 진출 한국 회사의 직장상사로 만났거나,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자 등 ‘한국’과 연결된 지점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는 연애결혼의 경우 10살 정도, 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경우 14살, 17살 등으로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조금 더 높은 연령차를 드러내고 있다. 남편의 학력, 결혼연도, 베트남 이주연도 등은 유

9) 호찌민에서 한-베 가정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베트남 아내를 만나는 일보다 한국인 남편들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웠다. 한국인 남편들은 처음에 인터뷰에 쉽게 응해주지 않았다. 아이의 한글학교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인 남편들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남편과 아내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연구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남편이 화자인 경우가 많았고 아내는 의견을 묻는 이야기에 대답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한국인 남편의 인터뷰가 주를 이루는 본 논문이 갖는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2년에서 8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획득한 한국어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가 많았으며(B,C의 경우) 연구자와의 인터뷰도 한국어로 가능했다. 자녀의 국적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이주 후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의 경우 이중국적의 용이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가서 국적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 인터뷰 대상자는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자

조사 대상	연령	학력	직업	고향	결혼 연도	결혼 형태	베트남 이주	한국 거주 기간	자녀(국적)	
A	남편	44	대졸	사진 인화업	경기	2006	중매 (중개업)	2009	3년	딸1(한국) 아들1(이중)
	아내	30	중졸							
B	남편	44	고졸	의류사업 및 결혼 중개업	경기	2005	중매 (중개업)	2011	6년	딸1(한국) 아들1(이중)
	아내	27	중 중퇴							
C	남편	49	고졸	화장품 판매업	인천	2005	연애	2013	8년	딸1(한국)
	아내	39	대졸							
D	남편	51	대졸	주재원 → 사업	서울	2001	연애	2004	3년	딸1(한국) 아들1(이중)
	아내	41	대졸							
E	남편	50	고졸	자동차 정비업	경기	2005	중매 (중개업)	2007	2년	딸2(한국) 아들1(베트남)
	아내	33	중졸							

Ⅲ. 베트남으로의 이주 동기와 과정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나라인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국제결혼 열풍은 한국인 남성에게 한국을 벗어나 다른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이주가 실현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해외 이주가 “유연성과 이동성, 모험과 도전, 기회와 부의 축적과 같은 역동적인 언어로 상상되는”(김현미 2014b:34) 것이다.

한-베 가정이 베트남으로 이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B-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결혼중개업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제결혼을 한 선배로서의 경험과 조언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게 신뢰감을 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결국 베트남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기존의 중개업 방식이 아닌 비록 소규모 형태지만 온라인을 통한 남성 고객 모집, 맞선, 서류진행, 기숙사형 한국어 교육 등 결혼 전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게 됐다.

[사례 01: 베트남에 대한 기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주]

“제가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베트남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이윤이 가장 크죠. 한국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큰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베트남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와서 살아보자.’ 한 번 두 번 왔다갔다 해보니까 생필품에 대한 물가가 싸단 말이에요. 이런 메리트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한국보다는 낫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B-남편, 40대)

베트남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베트남인 아내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을 ‘만만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처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습’으로 각인된다. 물가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느낀다. 한국인 남편은 몇 십 년 전의 한국 사회와 현재의 베트남 사회를 대입해 봤을 때 한국인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장경제를 미리 경험한 한국인이 베트남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경제적 기회를 갖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주를 결심한다.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행위에서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베트남 이주를 감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2세 자녀가 또래 친구로부터 차이를 경험하고 차별을 겪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동남아 출신 엄마를 두었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베트남 이주를 결심한다.

[사례 02: 회사 지사 설립과 아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주]

“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왔어요. 하나는 일단 회사 문제가 급했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아이들을 한국에서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싫으니까. 차라리 한국보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그나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편견이 적으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많고 대우 받으니까. 다만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적게 들겠죠.” (A-남편, 40대)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처가를 방문하면서 받은 호의적인 대접은 베트남 이주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은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대우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남편>은 한인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자녀도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차별은 ‘한국’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베 가정은 크게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 문제로 ‘베트남 이주’를 결심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E의 경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A, B, C의 경우), IMF시기 퇴직 후 취직을 위해(D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배타적 시선(B, C의 경우) 때문에 이주를 한다. 한-베 가정의 ‘역 이주’ 동기는 이처럼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더 나은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내 나라로의 이주는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한다.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베트남인 아내는 수동적인 결정자로 존재한다. 이처럼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내로서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수십 년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편으로서의 타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것이 고뇌를 동반하는 결단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이주를 결심하고 나면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관련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주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선(先)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베트남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온라인 카페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의 나라로의 이주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 경제적 문제와 섹슈얼리티 문제는 가족의 해체를 염려하는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된다. 이 점은 한-베 가정이 베트남 이주를 다시 한 번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사례 03: 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변의 염려]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들어오면 가정 파탄난다.’ ‘그냥 한국에서 살지’ 이 분도 경험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와이프는 서로 믿는다. 서로 잘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다.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에이 자신 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와이프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자꾸 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B-남편, 40대)

이주한 한-베 가정이 베트남 사회에 정착할 때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투자 하여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는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경우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가가 요구하는 경제적 도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베트남 이주의 실패는 물론이고 가족의 해체까지 염려하게 만든다. ‘돈 문제에 관해서 베트남 가족도 믿지 마라.’ 혹은 ‘돈 떨어지면 (베트남) 장인 장모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본다.’ 등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국제결혼’에 ‘돈’이 얼마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04: 이주 후 섹슈얼리티 문제를 염려하는 담론]

“제가 베트남 들어간다니까. 주변 다문화가정 남자들이 하는 말이. ‘oo엄마 나이도 어린데 베트남 가서 주변 남자들이 oo엄마 께시면 어떻게 하나 여자가 바람 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예요. 남자가 바람나는 경우가 더 많겠어. 모르는 사람은 젊은 남자들 많으니까 여자가 바람 날거다 이야기 하는데 반대예요.”(B-남편, 40대)

일반적으로 ‘젊은 아내, 나이든 남편’으로 구성된 한-베 가정에서 젊은 아내가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에 베트남인 젊은 남성과 애정관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담긴 담론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평가하는 일부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 아내가 이주노동자로 와 있는 베트남 남성을 만나 가출하는 사례가 과장되게 유포되고 우려를 양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베트남에 가면 남자가 망가진다.’는 이야기(B 아내)는 ‘잘사는 나라 외국인’이라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한국인 남편이 오히려 성적/애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베트남 아내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아내 입장에서 베트남 이주를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주를 결심한 한-베 가정은 베트남 이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된다. 아내의 고향에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할 사업을 구상하거나 베트남 사회에서 ‘먹힐 만한’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회사에 취직하는 경우(D의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며,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거나(A의 사례), 형제자매가 하는 사업의 베트남 진출(B, C의 사례)을 꾀한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내 고향에서 한국음식점이나 자신의 기술을 살린 사업(E의 사례)을 준비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이 계속 발생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만약 이주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인생을 건 모험으로 베트남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에서 축적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주비용을 마련한다.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 자금과 최소 1-2년 정도 살만한 수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주를 위한 또 다른 준비는 아내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는 일이다. 베트남에서의 이주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민인 아내 역할이 크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국민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 투자자 신분으로 사업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한-베 가정의 경우 소규모 사업이나 자영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투자조건은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베트남인의 주요 업종에는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 아내의 현지 국적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베트남 아내가 간이귀화조건에 따른 국적취득을 위한 요건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F-5)만 취득하거나, ‘국민의 배우자 비자(F-6, 구 F-2-1)’를 연장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유보하는 것이다. 국적 취득 유보는 베트남 이주 준비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셈이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일고 있다. 2011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이중(복수)국적¹⁰⁾이 허용됨에 따라 역 이주를 한 베트남인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모국 국적도 유지하고 있다. 아내는 베트남 국적을 이용해 자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외국인인 남편과 아이의 법적 보증인이 된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과 다른 나라(예를 들어, 한국국적으로 인한 무비자 입국국가)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상으로 한-베 가정이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고, 망설이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를 떠날 수밖에

10)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남진, 2013:96)

없는 사회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주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행위는 한국인이 베트남 사회와 베트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념을 드러내 주고 있다. 마침내 베트남 이주를 결심한 후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최상의 유리한 선택을 위한 전략적인 행위를 실천한다. 이런 점은 종합해 볼 때 아내 나라로의 이주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고뇌의 과정이며 세밀한 전략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한-베 가정의 젠더 관계

1. 경제적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형태는 잘사는 나라의 남성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의 결합이라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차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특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일 경우 결혼비용, 한국 입국 등 모든 비용을 남성이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매개로 한 종속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인 남편과 시댁 중심으로 이어지기 쉽다(강현주 2007:88). 다문화가정의 아내는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 국적 취득과 모든 공적 업무에서 한국인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적 가부장주의와 그에 따른 젠더 위계질서라는 구조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 김지은 2007; 정선애 2008; 문경연 2011 등).

베트남에서 한-베 가정의 모습은 다르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이민

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 시민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¹¹⁾. 하지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정기적으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비자를 면제 받는다. 적어도 2015년 7월 이전까지¹²⁾는 외국인의 토지소유, 임대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주로 베트남인 아내나 그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왔다. 베트남 체류와 관련한 법적 지위는 전적으로 베트남인 아내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동산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리도 아내에게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으로 이주하면서 아내가 가정에서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례 05: 베트남 이주 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준 사례]

“바뀌죠.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죠. 한국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모든 업무 자체가 다 제가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180도 바뀌어요. 제가 아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돈 관리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에게 돈 관리를 다 맡기잖아요. 편한 부분도 있고 돈을 타서 써야하니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게 뭐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죠.” (A-남편, 40대)”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남성이 생계부양자인 가구 경제

- 11)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국회 제 47/2014/QH13)으로 2015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비자법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은 기존 5년 비자 면제권 대신 영주권을 현실화 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대상자는 베트남 내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으며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3년 이상 연속 임시 거주해야 한다(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vnm-hochiminh.mofa.go.kr>).
- 12) 201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단체와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졌다(www.vietnamexpress.com 2014/11/26).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베트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50년간 부동산을 소유, 양도,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household economy)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내는 ‘한국 물정을 모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구 경제의 관리에서 주변화 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자국민인 아내는 ‘베트남 물정 모르는 외국인’인 남편을 대신해 가구 경제 관리를 주로 한다. 이처럼 아내가 가구의 경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아내가 경제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사례 06: 경제권을 가져온 후 겪게 되는 남편과의 갈등]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 통장 안 주는 거예요. 성당 언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남편이 통장주고 언니들이 관리하더라고요. ‘왜 안주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사업하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의심해요. 나한테 부동산 하라고 돈 주면서 의심해요. 요즘 사업하니까 힘들잖아요. 한국 돈 다 가져와서 하는데 없어지니까. 나한테 ‘다른 살림 하나?’ 이래요. ‘뭐 하러 의심 하냐고. 맡기려면 그냥 맡기지.’ 원래 그런 사람이 니어쨌겠어요. 나이차이도 많으니까. 젊은 남자들은 사회가 교육 많이 하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oo아빠는 옛날 사람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C-아내, 30대)

베트남 이주 후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 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C-아내>¹³⁾는 베트남 기관을 상대로 행정 일을 처리하고 베트남인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등 남편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 수입에서 아내의 역할이 커지고 베트남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들을 통해 한국인부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아내들

13) 결혼 전 하노이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호찌민시 외곽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C-아내>는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수입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하는 남편이 돈을 관리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남편이 가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문화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¹⁴⁾하면서 점차 경제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의심했다. 아내는 남편의 의심에 서운함을 표하면서도 ‘나이 많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처럼 경제 주도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편의 행동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나라로 이주한 남편에게 베트남 생활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주도하는 경제활동과정에서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아내에게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례 07: 베트남 이주 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는 사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한국에서는 모두 칼자루를 남자가 잡고 있죠. 베트남에서는 역전이 돼요. 여자가 잡고 있죠. 베트남에서는 집 계약부터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아내이름. 대부분 보면 경제권도 이전이 돼요. 저는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아내들에게 경제권을 많이 뺏기고 어떤 분은 머슴으로 전락하고, 자존심을 들췌 치고 생존의 문제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성질나서 깨지는 경우도 있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에 온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남자한테...아내의 홈구장이니까.” (B-남편, 40대)

한국에서 6년간 생활하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B-남편>의 경우 ‘인생의 동반자로 결속력을 다지고 가족애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신

14)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고에 따르면 부부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공동관리 29.2%, 각자 관리 10.5%, 남편이 관리한다는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는 전업주부나 일을 하는 워킹맘 여성이나 비슷한 수치의 응답결과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2014년 3월 3일 보도자료 <http://www.ppfk.or.kr>).

이 경제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홈구장’인 베트남 사회는 ‘이방인’인 남편에게 있어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권을 빼앗기는 일은 자신이 ‘머슴’으로 전락하는 일이며, 나아가 생존의 문제, 가정의 유지를 위협하는 일로 해석한다. <B-남편>은 결혼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한국인 남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돈 관리를 하고 있다. 대신 아내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아내가 결혼중개업 사업에 기여한 정도(한국어 수업과 통역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아내에게 끊임없이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부 간의 권력관계는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가사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입은 누가 높은지, 교육수준은 어떠한지, 직업이 상대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인 남편에게 베트남 생활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임으로 부부 간에 권력 다툼에서 경제권의 획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에서 점차 베트남 아내의 경제적 주도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위의 전복이나 젠더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들은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성별 위계에서 ‘남성’이 갖는 상대적 우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아내는 자신보다 더 나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의 배경을 활용해야 자신이 베트남 사회에서 누리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내 경제권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는 이주 행위가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 중 하나이다. 거주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젠더관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는 그 배경 안에서 전략적 행위를 실천하는 존재

들인 것이다.

2. 배우자 문화 간 이해의 변화

외국인 아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무관심한 한국의 가족 환경 때문에 한국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강현주 2007:5). 아내는 베트남으로 ‘역 이주’하면서 점차 커지는 모국에 대한 정체감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정서적 지지로 인해 점점 모국 문화를 표출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모국에 이주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식’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아내의 문화인 베트남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배타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례 08: 아내가 차려주는 한국음식을 먹고 있다는 자부심]

“도우미를 하나 쓰고 있어요. 사촌 처제인데 그래서 가사 일은 도우미가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한국식으로 음식은 해줘요. 아침은 꼭 챙겨주고. 이게 된게 6년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 1-2년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도 잘 안 될거예요.”(B-남편, 40대)

[사례 09: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아내]

“베트남음식 너무 간단하잖아요. 반찬하나 국 하나 야채 한 두 개 밥 이리니까. 내 생각에 한국 음식 습관이 몸에 더 좋은 거 같아요. 사람이 튼튼해지고, 베트남사람이 한국 사람들 보다 약해. 음식 때문에 그런가봐. 김치는 내가 남편을 배려하는거예요. 빨래, 밥 안하니까. 집안일 안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 한 달에 20킬로씩 만들었어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이 아빠가 배추 다 절여줘요. 저는 재료 사와서 담기만 하면 되니까.”(C-아내, 30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화적 차이는 음식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음식문화는 한국생활 초기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른 문화적 차이에 비해 정착기간과 비례하여 수월하게 적응하는 부분”(강현주 2007:47)으로 인식된다.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 내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아내와 남편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인 남편은 한국에 살면서 아내가 만든 ‘베트남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다. 베트남 이주 후 남편이 냄새가 강한 향신료나 향채가 들어가 있는 현지 음식에 적응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남편은 거의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한국식품점에서 재료를 사다 한국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가까운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베트남은 외식문화가 발달해서 아침은 대부분 쌀국수나 일종의 바게트 빵인 반 미(Bánh mì)를 사 먹는 경우가 많지만, 한-베 가정의 경우 아내가 한국식으로 아침을 차려 주는 행위가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차려주는 한국식 아침을 먹으면서 자신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현상은 아내가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남편의 가부장주의와 협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이 베트남 음식 사먹는 가격보다 3~4배 정도 비싼 한국 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물론 베트남 아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국음식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도 있다. 한국에서는 양육과 가사 일이 오롯이 자신만의 일이었다면 베트남에서는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도우미를 쓸 수 있어 집안일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이처럼 남편에게 한국음식을 해줄 수 있는 유리하고 불리한 여건이

모두 있지만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려이다. 남편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는 일을 ‘타국에서 사는 불쌍하고 외로운 남편’을 위한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은 가정 내에서는 베트남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베트남인 아내를 통해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 ‘베트남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한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며 이해하려고 애쓴다. 베트남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즉,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반 해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0: 이해할 수 있는 베트남 문화, 문화적 갈등의 타협]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 그런건 별로 없어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 이에요. 베트남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거부감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중략)... 아내도 바뀌는 부분은 바뀌지만 안 바뀌요. 제 단에 향 피우는 것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아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 잘 사니? 미국 이런거 하니?’ 절충을 했죠. ‘가급적이면 방향을 바꿔서 해라.’ ‘시간을 정하거나. 집 위로 연기가 올라오게 하지 말자.’ 나는 싫고 아내는 해야 하고...”(A-남편, 40대)

베트남 아내들이 믿고 행하는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조상숭배는 생활화 되어 있어 아침저녁으로 제단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올리고 인사를 한다. 한국인 남편은 ‘이것이 베트남 문화이고 아내가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의미에서 하는 일’인 점은 인정하지만,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기가 올라오는 위치

를 바꾸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도 ‘미국과 같이 잘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베트남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한다.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례 11: 점을 맹신하는 아내의 문화]

“(아내가) 불교를 믿는데 크게 전통불교가 아니고 점 보는 것 엄청 믿어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맹신을 하는데 이런 문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 (중략)... 얼마 전에는 (아내가) 코를 수술을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관상학적으로 수술을 안 하면 돈이 안 모아진대요. 그래서 ‘할 거면 한국 가서 해라. 여기서 하다가 괜히 잘 못하면 부작용 나고 하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해야 한다. 한국 가서 하면 소용없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봐요. 한심스럽고 답답하죠.”(E-남편, 50대)

[사례 12: 귀신을 믿는 아내의 문화]

“ ‘귀신이 있다. 자기도 봤다’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집에 귀신이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원인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한국에 6년 전에 왔을 때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생활을 하면서 거의 90%정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자꾸 또 그러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점쟁이고 엄마도 신기를 받아서 보인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90%가 된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한국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그거예요. 아이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까봐. 베트남 사람이라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B-남편, 40대)

베트남 아내는 점을 믿거나, 부적을 쓰거나, 귀신의 존재를 믿거나, 좋은 관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토속종

교 혹은 민간신앙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인 아내의 이런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느낀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적인 것을 다 잊어버렸다’든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주를 결심했는데 다시 베트남 사람이 되어 버렸다’ 등으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표한다. 아내가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사고와 행동이 ‘덜 교육되고, 덜 도시화 된 지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로 이해하면서도 자녀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까봐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자녀에게 베트남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에 이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에게 ‘한국적’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내에게 경제권은 주더라도 생활 전반에서는 한국 문화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문화는 맥락에 따라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해 문화의 상대성과 특수성을 온전히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남편/아내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을 시도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또한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한국문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남편은 문화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와 갈등

일반적인 결혼과 달리 배우자와 그의 가족, 친지들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국제결혼(특히, 상업적 중개를 통한 결혼)은 가족과 친족 내에서 서로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아내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해 시댁 식구와 관계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만 남편의 경우 멀리 타국에 있는 처가와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남편은 아내가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을 잘하기만 기대할 뿐 “본인들이 누구의 사위가 되거나 사위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김영옥 외 2013:194)가 많다.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처가에 송금을 하면서 ‘사위 노릇’을 시작 한다. 송금은 “원거리에서도 가족들 간의 관계를 재생산 하면서 소속감을 확보하는 기제”(Peter 2010, 김이선 외 2014:14 재인용)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송금’ 행위는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의심할만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례 13: 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현실과 경제적 지원]

“제가 첫눈에 반해서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제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뉘냐고 했더니 (친정에) 집을 지어줘야 한 대요. ‘이것 때문에 결혼한거다.’ 집을 짓는데 천 만원이 든대요. 시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집을 지어줘야 손가락질을 안 받아요. 집을 지어주니까 자존심도 올라가고... ‘국제결혼이 이런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이것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국제결혼의 첫 단추가 시작부터가... 신랑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어야 해요. 지원을 안 해주면 결혼이 순탄치 않아요.” (B-남편, 40대)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자신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낭만적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결혼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남편은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은 해 줄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한다. 서로가 결혼의 목적이 달랐음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보상’으로 인해 자신이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 눈치 안 보고 두 다리 펴고 편안하게 대접받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송금행위를 ‘자식으로서, 사위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A-남편>의 경우는 아내와 결혼을 할 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 한국 본사의 부도 위기로 생활이 어려웠을 때에도 처가에 꾸준히 생활비를 보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비교적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송금 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으면서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국제결혼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아닐 경우(C, D 가정) 한국인 남편은 ‘송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렇다고 베트남 아내가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내는 남편이 처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장인과 장모를 챙기지 않을 때 서운함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개는 자신이 ‘연애’ 결혼을 했고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국인 남편은 ‘사위 노릇’을 하면서 처가 식구와 정서적 유대감과 사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는 남편에게 처가 송금행위와 처가 방문행위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베트남 이주 후 처가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가의 사회적 관계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사위의 베트남 이주와 딸의 귀환은 고향마을에 ‘성공한 국

제결혼'으로 가시화된다. 베트남에서의 이주 후 생활을 위해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를 꾸리는 등 한국에서 축적된 자산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한 <B-아내>는 베트남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복권 파는 일을 했었다.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6년 후 베트남에 돌아와 호찌민 시내 중심 대형쇼핑몰 의류매장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고향마을에서 놀랄만한 일로 회자된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시골을 벗어나 호찌민 시내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처가/친정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사위와 딸'에게 거는 기대감으로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처가 식구들은 빚을 갚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사위나 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이 필요하면 당연하게 경제적 요구를 하는 처가식구를 보면서 특히, '외국인 사위'는 자신을 '돈'으로 보는 시선에 불편함을 느낀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이주 후 처가 식구와 관계 맺는 일이 많아진다. 가까이 살다보니 집안 대소사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시골에 사는 처제나 나이 어린 인척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상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책임도 생긴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딸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아내의 고향마을에서는 이들이 '성공해서 호찌민에 돌아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의 계속되는 요구에 사위로서 가족 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남편은 처가와 관계 속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처가에 가봐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가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처가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 결과 점차 처가에 갈 일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만 보내는 횟수가 늘어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한국인 남성이 처가와 가까이 살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돈’이 매개가 되는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한국인 남편은 ‘처가와외의 관계에서 ‘돈’에 웃고 ‘돈’에 우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처가에서 ‘사위 노릇’을 하면 할수록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는 ‘불효자’인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V. 자녀교육의 딜레마: ‘글로벌’한 아이와 한국적인 아이

결혼이주여성 가족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내의 나라/모국으로 교육이주 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을 활용하여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이다. 특히, ‘영어’ 자원의 획득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의 가족의 경우 교육 이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베트남은 자녀 교육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이선 외 2014:49).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에서 자녀 교육은 주목적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중언어, 이중문화교육’이 정책의 기조가 되는 것처럼, 한-베 가정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이중언어자원의 획득이 곧 ‘글로벌’한 자녀교육이 될 수 있다는 수사를 포함시킨다.

한-베 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보다는 베트남에서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한다. 실제로 혼혈 아동에 대한 차별이 적은 베트남 사회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따돌림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베트남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호찌민시의 한글학교에 다니는 한-베 가정 2세 아이들 중에는 ‘한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많다. 부모들은 한국과 베트남을 매개하는 글로벌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아이가 글로벌하게 자라게 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에 걸쳐있는 아이의 초국적 정체성과 함께 이중(혹은 삼중)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녀로 하여금 국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징적 자원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일 기회”(schiller et al. 1995:54; 김이선 외 2014:9 재인용)로 삼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 14: 이중 언어가 가능한 베트남에서의 교육]

“좋은 건 모국어 두 가지 생기는 거. 한국어, 베트남어... 그게 진정한 다문화가정이죠.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 가정이죠. 아이들 이중 언어 교육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베트남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D-아내, 40대)

‘진정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을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 나라의 언어 습득과 세계 공용어인 영어 습득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 베트남 이주 당시 자녀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어느 정도 한글을 깨우친 경우에는 베트남에 와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동시 습득이 가능하다. 아빠에게는 한국어로, 엄마에게는 베트남어로 이야기 하는 수준이 가능해 진다. 자녀

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엄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베트남어만 사용하게 된다. 유일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노력 없이는 한국어 습득이 거의 불가능하다.

취학 연령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어떤 학교로 보내야 하는지 ‘정답이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국학교, 국제학교, 베트남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다문화정책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관심과 지원이 없는 베트남 사회에서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부모는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영어권 나라에서 설립한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한-베 가정은 연간 등록금과 수업료가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¹⁵⁾. 그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학교나 베트남 학교를 보내고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언어(대부분 영어)를 교육하지만 이 또한 가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렇듯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글로벌’한 아이 키우기에 많은 제약을 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에는 ‘한국인’ 아이라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 2세 아이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¹⁶⁾ 한국인 아버지는 한국 국적인 ‘한국 아

15) 국제학교 학비에 대한 부담은 비단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다문화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학비를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대기업 주재원들이나 사업이 잘 되는 소수의 한인 자녀들만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장에 파견되어 나온 일반 한-한가정의 경우는 국제학교를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다수는 월 250\$ 정도의 학비를 내는 한국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다. 보다 자세한 호찌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에 따른 생활에 대한 내용은 채수홍(2014: 76-81) 논문 참조.

이가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인 같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유용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 15: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을 지향]

“베트남에 살 때 한국국적을 가지는게 낫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자신의 가치는 주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미 이 사람은 10만 달러를 배우는 기본을 가지고 사는거예요. 국가적으로 비교했을 때... 베트남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한 달에 2백불 짜리, 한국 사람은 2천불짜리예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요. 여기에 있는 한국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인들과 사업을 해도 한국국적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자연장 이런건 불편하더라도.” (A-남편, 40대)

현지에서 자녀를 한국인으로서 교육시키고 살게 만드는 것은 부계혈통중심에 의해 아버지 나라의 정체성을 따르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력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와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베트남인 아내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베 가정 부모는 글로벌한 아이로 만들겠다는 원래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자녀에게 철저히 '한국식' 교육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이주한 한-베 가정에서 주류사회의 문화인 베트남 문화로 동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 교육에

16) 결혼 초기부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내의 나라/모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한국에서(베트남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차남 혹은 차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있어서는 끊임없이 한국과의 연결을 시도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사회에서 온전히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를 균형 있게 체화시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나마 한국유치원, 한국학교를 보내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한국계 학교에 다니면 언어습득에 있어서도 제 1언어가 한국어, 제 2언어가 베트남어 혹은 영어가 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2세의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시선’에 염증을 느껴 이주를 결심한 경우(A 가정)나, 한국식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경우(E 가정), 경제적으로 한국국제학교의 학비가 부담되는 경우, 한국어나 베트남어보다 영어의 중요성을 높이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식 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을 위한 공공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국’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국에 자주 가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형제자매의 집에 보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사례 16: 방학을 이용한 자녀의 한국체류]

“한국에 자주 가려고 해요. 자주 접하게 만들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야하지 않을까. 방학 동안에는 한국에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 한국 정서도 익숙해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한국적 사고방식도 가지게 될 것이고 베트남 사고방식과 함께 갖겠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자기 뭣이죠. 걱정은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C-아내, 30대)

위 사례처럼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휴가나 방학을 이용

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 하는 일은 고국과의 연결성을 끊임없이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 가정에서 가족 전체가 한 번 움직이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다. 최소 몇 백 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앞으로의 기회와 발전가능성을 생각할 때 자녀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글로벌’하게 살기를 바란다. ‘글로벌’한 아이 키우기 전략은 베트남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국력에 의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누리는 방식이 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여건이 좋지 않아 ‘영어’를 기반으로 한 자녀 교육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베트남어라는 언어적 자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름 글로벌’한 자녀교육으로 평가한다.

한-베 가정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 예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한-베 가정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지는 의문이다. 민족 간 위계에 따른 임금차나 직급차이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인’으로 대우 받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길 원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기도 하다. 한-베 가정 부모와 자녀가 이런 딜레마 속 자녀교육의 현실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나가며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 동기와 과정, 이주 이후의 경험을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한-베 가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이주의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건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다. 처가/친정 식구들의 사회적 관계와 인적 관계를 활용해 베트남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글로벌’하게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주 후의 삶이 녹록치만은 않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는 달라진 사회문화적 배경아래 경제적 주도권과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갈등, 인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다. 자국민의 이점을 이용하여 점차 강화되는 아내의 주도적 행위성에 한국인 남편은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염려한다. 그럴수록 한국인 남편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한국적’인 생활방식과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아내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처가/친정과 관계에서도 딸의 ‘성공한’ 국제결혼과 ‘잘사는 나라 외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로 하여금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기대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한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의 물질적 기대와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돈독한 정서적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일 뿐더러 한국에서의 최소 몇 년 거주 기간 후 이주를 감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이주 역사는 길어야 10년 정도이다. 초기에 이주한 한-베 가정은 정보와 사회관계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고향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처가에서 하는 생업(예를 들어, 베트남 남부에서 많이 하는 새우 양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자신이 살 집을 짓는 등 베트남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아내 고향에서의 사업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더군다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지고 온 이주비용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곤 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한국 교육이 부재한 베트남 시골에서 자녀는 점차 베트남 문화에 동화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최근에 이주한 한-베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비슷하다. 전에 비해 많은 정보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호찌민과 같은 도시로의 이주도 늘어났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시작한 사업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인’처럼 먹고 ‘베트남인’처럼 생활할 수도 없다. 생각보다 높은 호찌민 물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점차 좋아지기는 힘들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은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다. 이들은 자신이 이주 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한인사회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사회에도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한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베트남 사회에 ‘가해자 한국인 남편, 피해자 베트남인 아내’라는 인식이 유포되어 있고 그 결과 베트남 사람들이 한인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 결과 한인들은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사람은 물론 결혼중개업을 하는 한국인 ‘업자’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는 삶의 공간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만들어 베트

남 사회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실천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에 이주한 이후에도 베트남 한인사회에 들어와서 또 다시 차별적 시선을 느끼게 된다. 한인 사회를 피해 베트남 로컬 사회로 들어가서도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돈’ 없는 ‘외국인’은 인정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한-베 가정은 점차 커져가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한다. 결국 베트남에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녀에게도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감정이 앞선다. 이처럼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초국적 환경 속에서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가정의 초기 적응 단계에서의 생활상과 현실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주사회에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더해 갈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이주민 세대를 아우르는 연구와 구성원들의 초국적 행위성, 자녀들의 고향의 의미와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확대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주제의 이론적 쟁점을 통해 다면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주제어: 역 이주, 베트남 이주, 한-베 가정, 이주과정, 젠더, 자녀교육

〈참고문헌〉

- 강현주.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나경. 2015. “베트남 귀환이주노동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진. 2013. “女性結婚移民者の 滯留資格 및 國籍取得에 관한 法制研究.” 전남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76.
- 김영옥·김현미. 2013.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 구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가족.” 『젠더와 문화』 6(2): 177-213.
- 김이선·이아름·황정미. 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기. 2014.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학보』 32:139-163.
- 김지은. 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농촌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12. “결혼이주여성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 5(2): 113-145.
- _____. 2014a. “‘유보된 삶’ 몽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이후의 삶.” 『이화젠더법학』 6(2): 25 - 43.
- _____. 2014b.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 김현정. 2013. “한국 고령남성의 베트남 이주경험에 관한 질적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44(4):59:87.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2-112.
- 박현숙·김광웅. 2012. “다문화가정 자녀 연구 동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459-485.
- 서정경. 2014.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 송준중. 2008. “교육적 공간 전략으로서 ‘탈’한국: 특징과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4(2).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2013.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안지영·박찬욱. 2013. “스리랑카 거주 한국-스리랑카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유아복지학논집』 17(4): 209-239.
- 양영균·문옥표 외. 2008. 『다민족 관계 속의 LA한인』.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 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5): 194-237.
- 양혜우. 2011. “귀환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가 초국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네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응우엔 티 미 주엔(Nguyen Thi My Duyen). 2012. “베트남 호치민시의 해외 이주민과 그들의 생활공간 형성 및 이용실태.”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박재홍. 2006. “재독일 교민의 역 이주와 귀향의식에 대한 연

- 구: 남해군 ‘독일마을’ 입주 교민들의 경우.” 『독어교육』 36: 443-480.
- 이창호. 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45(3): 153-198.
- 자야틸라카(Jayatilaka). 2011. “스리랑카의 여성 이주노동자와 변화하는 가족.” 허라금 엮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서울: 한울아카데미. 144-161.
- 장수현. 2010.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국화교에 대한 사례연구.” 『현대중국연구』 11(2): 263-297.
- 전기택 외. 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선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 되기’와 사회적 성원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13. “다민족사회, 소수민족, 코리아 아메리칸.” 『재외한인연구』 29.
- 채수홍. 2005. “호치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11(2):103-142.
- _____.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5-39.
- _____. 2014. “호치민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적인 삶: 일터와 거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0(2): 47-94.
- 최영호. 2012.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외한인연구』 (26):275~282.
- 최호림. 2015. “국제결혼에서 귀환까지: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 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68:143-182.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_____. 2008.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7: 225-268.
- Cassarino, J.-P. 2004. “Theorising Return Migration: The Conceptual Approach to Return Migrants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6(2): 253-279.
- Gmelch, G.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35-159.
- Peter, Kankonde Bukasa. 2010. “Transnational Family Ties, Remittance Motives, and Social Death among Congolese Migrants: A Socio-Anthropologica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2): 225-243.
- Schiller, G., N., Basch, L. and Blanc, C. S.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Tsuda, Takeyuki. 2009. “Introduction: Diasporic Return and Migration Studies.” Takeyuki Tsuda(ed.).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18.

(2015.06.02.투고, 2015.08.04.심사, 2015.09.07.게재확정)

<국문초록>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과정, 젠더 그리고 자녀교육

장 지 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다문화가정에 주목한다. 그들은 왜 베트남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 베트남에서 살게 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는 가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 베트남 이주 후 자녀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하면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처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설명하고 이들이 처한 조건하에서 구사하는 전략적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베 가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주한다. 이주의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건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다. 처가/친정 식구들의 사회적 관계와 인적 관계를 활용해 베트남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글로벌’하게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는 삶의 공간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만들어 베트남 사회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실천이었다. 베트남

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초국적 환경 속에서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주제어: 역 이주, 베트남 이주, 한-베 가정, 이주과정, 젠더, 자녀교육

<Abstract>

The Immigration process, Gender, and Children Education

: A Case study of Korean-Vietnamese Families in Vietnam

Jee-Hye Jang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focused on Korean-Vietnamese families who returned and migrated from Korea to Vietn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faced by Korean-Vietnamese families of return migration and also to understand strategic behaviors and practice they implemented under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fter 'return-migration' husbands and wives tend to go through conflict, recognition, and negotiation in terms of economic financial initiatives and cultural difference. Korean husbands tend to represent patriarchal property requiring 'typical Korean' lifestyle and way of thinking after the 'return-migration' to Vietnam. Even if they forgo the economic power to their wives, they have an attitude of pursuing Korean culture in their overall lives. In addition, they make an attempt to understand Vietnam culture depending on the context but not completely accept cultural relativity and uniqueness based on ethnocentrism.

Parents in the Korean-Vietnamese families wish their children to have 'Korean' identity but also pursue 'global' perspective when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In terms of making an effort to make their children pursue 'global' perspective and talent, they tend to find it difficult due to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in Vietnam, they see social discrimination just like they did in Korea. In local society of Vietnam, 'foreigners' without 'money' are not properly treated. 'Return migration' that was once regarded as a ray of light of wish in the past starts witnessing how expectation slips away from reality.

Husbands and wives in Korean-Vietnamese families of 'return migration' adopt strategic choice to overcome negative reality both in Korean and Vietnam society. However, they tend to suffer from difficulty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al stereotype.

Keywords: Return Migration, Vietnam, Multi-cultural family,
Immigration process, Gender, Children Education